“보살 원력으로 중생 고통 해결을”

국회 정각회, 5월 10일 창립 40주년 기념법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78년 불자 의원 소모임이 시작
1983년 4월 ‘정각회’ 정식 창립해
진우스님, “K-명상 보급할 것”
의원들 ‘상호 배려 · 화합’ 다짐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전달


국회 정각회는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 전 기념촬영 모습.

불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각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고 화합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종단협 수석부회장 덕수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법명(관음종 총무원장) · 호명(태고종 총무원장) ·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정각회는 1978년 4월 불자 국회의원들의 소모임으로 시작됐다. 정식 발족은 1983년 4월 27일에 이뤄졌으며, 권익현 의원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국회 정각회’라는 이름은 조계종 제18대 총무원장과 원로의원, 전계대화상을 역임한 성수 스님이 지었다.

창립 이래 국회 정각회는 불교를 외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 불교계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역할을 했다. 특히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제 · 개정과 불교방송 개국, 군종장교 비율 조정, 경승제도 신설 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제14대 국회였던 1995년 4월 27일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본관에 불교법당인 ‘정각선원(正覺禪院)’이 개설됐다. 당호(堂號)는 봉선사 중흥조 운경 스님이 명명했다. 정각회는 2009년부터 매월 첫째 수요일 정기법회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 당시에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법회를 봉행했다. 제11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정각회는 현재 국회의원 47명, 국회 직원 72명 총 119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법회에서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보살의 원력으로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정치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45년간 끊임없이 중생들과 호흡하시며 불법은 세상 속에서 구현돼야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셨다”면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보살의 원력으로 오로지 전법일심(傳法一心)으로 세상의 고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간절한 발심으로 과거 천년의 역사를 보듬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 불교중흥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종단 중점 사업인 선명상 개발 ·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불교는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상기시킨 진우 스님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락(苦樂)과 업(業)을 없애는 ‘업장소멸’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단에서는 선 명상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려 한다”면서 “현대인의 사고에 맞춰 개발한 K-명상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자살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주 회장은 “국회 정각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우리 국회에서 구현하고자 결성된 국회 불자 모임”이라며 “모든 존재들의 안녕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처님을 본받아 국회 정각회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오기와 독선을 몰아내는 데 노력하고 있는 국회 정각회 회원들의 행보에 국민의힘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영배 정각회 수석간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화쟁과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힘을 모으면 나라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회 정각회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문체부도 든든한 파트너로 동행하겠다”고 했으며,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불교적 사고와 가치를 가진 국회 정각회의 의정활동이 최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각회 회원들과 법회 참석대중은 상호 배려와 화합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법회 참석 사부대중은 김두관 국회 정각회 간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신심으로 수행하고 정진하는 불자가 되겠다”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모순을 원만하게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국회 정각회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또한 국회 정각회 발전에 공로가 큰 정병국 국회법우회 초대회장과 김경해 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진우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 주호영 회장, 이원욱 명예회장, 김영배 수석간사는 국회 정각선원에서 108배 정진을 진행했다.

종덕 · 현덕 법계 품서…“불퇴전 각오로 정진”

조계종 법계위 품서식 봉행
상반기 승가고시 시상식도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는 5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 · 현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하고, 비구 64명, 비구니 23명에게 각각 종덕과 현덕 법계를 품서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품서식에서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수행자가 법계를 품서하는 일은 그간의 수행이 원만했고, 앞으로의 수행을 감당할 만한 자질을 갖췄음을 증명받는 일”이라며 “불퇴전의 신심으로 스스로가 환희롭고 일체중생이 감동하고 찬탄하는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정진을 당부했다.


종덕 법계를 품수하는 비구스님들이 새 가사를 정대한 채 용맹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종덕 · 현덕은) 높은 지위와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출가 당시 초심을 세워 참된 진리를 사회에 전하는 한국불교의 기둥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를 비롯해 법계위원 무관 · 정여 · 동광 · 현고 대종사는 단상에 올라 품수자들에게 서원시달을 하고, 대표 품수자인 법원 · 도진 스님에게 법계증을 수여했다. 이어 새 가사를 수한 품수자들은 불조의 혜명을 이어 정진할 것을 함께 발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는 같은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덕 · 현덕 법계를 품수하는 1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법원 · 비구니 도진 스님, 3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수인 · 비구니 혜돈 스님, 4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조주 · 비구니 정연 스님이다. 윤호섭 기자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전달 잇달아

자광 대종사 1000만원 쾌척
밀양 표충사 3000만원 전달
통도사, 요양병원 기금 기부

조계종 주요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이 전국에서 답지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자광 대종사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워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 존숭토록 해야 한다”며 “총무원장 스님은 추진력과 원력이 강하니 마애부처님을 반드시 바로 세우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5월 11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진우 스님은 “원로의장 대종사께서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 대종사께서 성원해주셔서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과 민병덕 반야사 신도회장(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이 배석했다.

이에 앞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와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는 아미타요양병원 운영기금과 ‘천년을 세우다’ 기금을 전달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5월 10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미타요양병원 기금 3000만원과 ‘천년을 세우다’ 및 승려복지기금 3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세우는 ‘천년을 세우다’와 아미타요양병원 운영은 37대 집행부의 중점사업”이라면서 “두 사찰에서 보내주신 기금은 중점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덕 스님은 “종정 예하께서 아미타요양병원 개원 취지에 공감하셨고, 사부대중이 뜻을 받들어 기금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승려복지에 관심을 갖고 돕겠다”고 했으며, 진각 스님은 “37대 집행부 중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종단 사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1층 | 전화 02-720-1786 | 팩스 02-720-1788 | www.seungso.co.kr

스님들이 드시는 그 맛 그대로,
정통 사찰식 만두
왕교자 출시!

스님들의 6번의 감리 끝에 탄생한 고품질 정통 사찰식 만두가 5월 출시되었습니다.
사찰식 왕교자는 전화주문 및 승소매장과 승소몰(www.seungso.co.kr)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6가지 채소가 듬뿍
청양고추로 깔끔하게 잡은 끝맛
스님의 레시피를 온전히 담아내다

CJ 제일제당 | 승소(僧笑)

본연의 순한 맛을 담은
사찰식 왕교자 Korean temple mandu



1.05 kg (1,890 kcal) | 제품명 : 사찰식 왕교자 / 양배추 18.11 %, 절임배추 8.56 % (배추 98 %), 쥬키니호박 6.54 %, 숙주나물 4.03 %, 건조무 2.01 %, 청양고추 0.50 % | B2B 전문 브랜드 크레잇이 보증합니다